

‘매서운 몰아치기’ 손흥민…살라제치고 EPL 득점왕 오를까

EPL 개인 통산 두 번째 해트트릭…팀 4-0 대승 이끌어 리버풀 살라(20골)와 3골 차…썬선수 최초 득점왕 눈 앞 남은 리그 7경기서 한 골만 추가시 정규리그 최다골 신기록

‘손세이셔널’ 손흥민(30·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막바지 매서운 몰아치기로 득점왕 경쟁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지난 10일(한국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에서 벌어진 아스톤 빌라와의 2021~2022시즌 EPL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3골을 터뜨려 토트넘의 4-0 대승에 앞장섰다.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리그 4연승을 달린 토트넘은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 마지노선인 4위(승점 57) 자리를 지켰다. 최근 무서운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는 손흥민이다. 지난달 21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 멀티골을 시작으로 4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전 득점에 이어 3경기 연속 득점포다. 올 시즌 손흥민이 3경기 이상 연속골을 넣은 건 지난해 12월3일 브렌트포드전부터 같은 달 27일 크리스탈 팰리스전까지 4경기 연속골 이

후 두 번째다. 당시엔 경기당 1골로 총 4골을 넣었는데, 이번엔 3경기에서만 6골을 집중시키는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EPL 진출 후 개인 통산 두 번째 해트트릭이기도 하다. 2020년 9월 20일 사우샘프턴과의 2020~2021시즌 2라운드(4골)에 이어 또 한 번 해트트릭 원맨쇼를 펼쳤다. 시즌 초반 다소 주춤했던 득점 레이스와 비교하면 막바지 페이스는 매우 인상적이다. 어 느새 리그 17호골로 2020~2021시즌 세웠던 자신의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골과 타이틀을 이뤘다. 이제 남은 EPL 7경기에서 한 골 더 추가하면 자신의 정규리그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쓴다. 모든 대회를 합친 공식전 득점도 개인 최다였던 2020~2021시즌 22골에 4골만을 남겨뒀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1골)를 포함해 공식전에서 총 18골을

기록 중이다. 현지에서도 손흥민을 향한 찬사가 쏟아졌다. 경기 후엔 EPL 홈페이지에서 팬 투표로 선정하는 ‘킹 오브 더 매치(King of the Match)’에 선정됐다. 이번 시즌 벌써 11번째다. 또 영국 스포츠는 손흥민에게 평점 10점 만점을 줬고, BBC는 손흥민을 주간 베스트11에 뽑았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EPL 득점왕 경쟁이다. 빌라전에서 15~17호골을 추가한 손흥민은 득점 선두 모하메드 살라(리버풀·20골)를 3골 차로 맹추격했다. 뒤집기가 불가능해 보였던 살라와의 격차가 최근 좁혀지면서 득점왕 경쟁도 알 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마침 살라는 11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침묵하며 득점 수를 더 늘리지 못했다. 손흥민의 이번 시즌 득점 행진이 더 대단한 이유는 단 한 개의 페널티킥 없이 17골을 넣었기 때문이다. 페널티킥을 제외한 득점은 EPL에서 1위다. 살라의 경우 페널티킥 득점을 제외하면 15골로 손흥민보다 적다. 남은 일정도 손흥민에게 유리하다. 정규리그만 남겨둔 손흥민과 달리 살라는 리그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UEFA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손흥민이 EPL 득점왕에 오르면 아시아 선수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9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열린 애스턴 빌라와의 2021~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 후반 26분 팀의 네 번째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 골로 해트트릭을 완성하며 팀의 4-0 승리를 이끌었다.

로는 최초로 EPL 최고 골잡이에 오르는 대기록을 남기게 된다. 한편 손흥민은 오는 16일 홈구장인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브라이튼을 상대로 4경기 연속골을 노린다. EPL을 포함한 유럽 주요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에 오른 사례는 찾기 어렵다. 뉴스

거침없는 최민정의 질주…전이경·진선유도 넘었다

한국 선수 역대 최다 우승 기록 수립…“앞으로 더 많은 타이틀 위해 노력할 것”



최민정(가운데)이 10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의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막을 내린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종합우승 메달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러 약재도 최민정(24·성남시청)의 질주를 막지 못했다. 최민정이 다시 한 번 세계 최강자로 우뚝 섰다. 최민정은 11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 리처드 아레나에서 끝난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에서 금메달 4개를 목에 걸었다. 여자 1000m, 1500m, 3000m 슈퍼파이널을 석권한 최민정은 동료들과 함께 한 3000m 계주에서 짜릿한 역전승까지 만들어 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최민정은 아웃코스 로 치고 나간 뒤 날 들이밀기로 캐나다와 네덜란드 선수들을 간발의 차로 따돌렸다. 여자 500m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종목 금메달을 쓸쓸히 한 최민정은 여유있게 종합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민정이 세계선수권 종합우승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2015년 모스크바 대회를 통해 전설의 시작을 알린 최민정은 이듬해 서울 대회, 2018년 몬트리올 대회에서 1위에 등극했다. 올해 몬트리올에서 영광 재연에 성공한 최민정은 전이경, 진선유(이상 3위)를 제치고 한국 선수 세계선수권 최다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코로나19로 인한 준비 과정의 어려움과 월드컵 중 찾아온 부상 등을 딛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1500m 시상대를 정복한 최민정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임을 재입증했다. 특히 이번 대회를 앞두고 꺾기려운 관계인 심석희의 복귀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맘껏 발휘했다. 역대 세계선수권에서 최민정보다 많은 종합우승을 차지한 이는 양양(중국 6회) 뿐이다. 중국 쇼트트랙이 배출한 최고의 선수인 양양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 연속 왕좌를 지켰다. 최민정이 양양을 넘어선다면 세 번 더 타이틀을 거머쥐어야 한다. 아직 24세로 앞길에 장창한 최민정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최민정은 경기 후 ISU와의 인터뷰에서 “4번째 우승을 차지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타이틀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주 막판 역전 레이스를 두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내가 먼저 선을 넘게 됐다”면서 “예상 밖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쇼트트랙의 매력”이라고 전했다. 최민정에게 밀려 다잡은 계주 우승을 놓친 캐나다 마지막 주자 김부영은 역전을 허용했다는 것을 알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김부영은 “경기 후 아웃코스에 있던 최민정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최민정이 강했다”고 박수를 보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부 정나는

코리아오픈 여자복식 ‘우승’

여자복식 1위·혼합복식 3위…우수한 성적 거둬



화순군 소속 정나는 선수가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복식 1위, 혼합복식 3위를 차지했다. 정나는 선수는 지난 10일 순천팔마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2022 코리아오픈 배드민턴선수권대회 결승에서 김혜정(삼성생명) 선수와 짝을 이뤄, 태국의 베나파 아임사드-눈타카른 아임사드 조를 2-0(21-16, 21-12)로 물리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정나는-김혜정 선수는 지난 3월에 열린 2022 전영오픈 여자복식에서 세계 1위인 중국의 첸징첸-지아위윈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김원호(삼성생명) 선수와 합을 맞춘 혼합복식에서는 고성환(김천시청)-엄혜원(MG새마을금고) 선수에게 겨 3위의 성적을 거뒀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 기세를 몰아 12일부터 광주에서 개최되는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도 정나는 선수의 승전보가 계속되길 기대한다”며 “부상 없이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도록 군에서도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아쉬움 삼킨 류현진 “다음 경기선 선발 투수 역할하겠다”

11일 텍사스전 3⅓이닝 6실점 부진



시즌 첫 등판에서 부진했던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반등을 다짐했다. 류현진은 11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텍사스 레인저스와 경기에 선발 등판, 3⅓이닝 5피안타(1홈런) 2볼넷 4탈삼진 6실점에 그쳤다. 투구 수는 70개, 3회까지 1실점으로 잘 버텼지만 4회 집중타를 이겨내지 못했다. 선발 류현진이 난중에도 패지면서 팀도 6-12로 졌다. 시즌 첫 등판에서 남긴 씁쓸한 결과에 류현진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TS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류현진은 “3회까지 잘 던졌지만 4회 투구 수가 많아졌다”며 “커맨드와 직구 등 모든 것이 괜찮았다. 하지만 4회 첫 타자 미치 가버에게 볼넷을 준 뒤 흔들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4회 가버에게 볼넷을 내준 뒤 후속 아들리스 가르시아를 땅볼로 돌려세웠다. 그러나 이후 쏟아지는 집중타에 연거푸 실점했다. 류현진은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4회(투구 내용)에 문제가 없었다면 더 많은 공을 던졌을 거다”라며 “내가 더 잘했다면 달랐을 것”고 말했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도 류현진의 투구에 대해 “초반에는 날카로웠지만 이후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평가했다. 류현진까지 조기 강판되며 토론토는 개막 후 3경기에서 선발승을 한 번도 거두지 못했다. 9일 개막전 선발로 나선 호세 베리오스는 1⅓이닝 4실점에 그쳤고, 10일 케빈 가우스먼은 5이닝 3실점으로 물러났다. 류현진은 “오늘 경기에선 내 역할을 하지 못

마스터스 8위 임성재 “항저우AG ‘금’ 따고 싶다”

‘재활’ 타이거 우즈, 복귀전서 47위

임성재는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골프 대표팀 승선에 대해 “만약 내가 출전하게 되면, 단체전이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겠다. 아무래도 4명이 팀으로 나가는 만큼, 다 같이 파이팅 하며 열심히 쳐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시우(27)는 마지막날 4타를 잃어 최종합계 7오버파 295타로 공동 39위에 머물렀다.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최종합계 10언더파 287타를 기록해 정상에 올랐다.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마스터스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그린 재킷도 입었다. 셰플러는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해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13오버파 301타를 쳐 47위에 올랐다. 우즈는 1라운드에서 공동 10위에 오르는 등 선전을 펼쳤지만, 2라운드부터 컨디션 난조와 경기력 부재로 발목을 잡혔다. 지난해 2월 자동차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우즈는 마스터스를 통해 복귀를 했지만, 여전히 사고 부위에 통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임성재(24)가 올해 첫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1500만 달러) 마지막 날 공동 8위로 마무리했다. 임성재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3개, 버디 6개를 쳐 3오버파 75타를 기록했다. 3라운드에서 3위에 올랐던 임성재는 마지막날 부진해 역전 우승에 실패했다. 최종합계 1언더파 287타를 기록해 공동 8위에 자리했다. 2020년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에 올랐던 임성재는 올해도 톱10에 진입했다. 임성재는 “오늘 만족하는 라운드는 아니었다. 퍼트 실수가 많이 있어서 아쉬웠다.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쓰리 퍼트도 나오는 등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4년 연속 마스터스에 출전하게 되는 임성재는 “세계랭킹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출전 티켓을 미리 확보했다는 점에 감사하고 내년에도 다시 칠 수 있어 기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는 “마스터스는 어렸을 때부터 출전하고 싶던 대회였다. 어렸을 때부터 TV로 보았다. 꿈의 무대와 같은 느낌의 대회이다”고 설명했다.